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7월 26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26(월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7. 23.(금)	담당부서	정보보호담당관
담당과장	류동희 과장(044-203-5590)	담 당 자	김인 사무관(044-203-5597)

산업부 차관, 40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

▸ 국내외 사이버위협 동향 공유 및 기관별 대응상황 점검

▸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현장방문, 가상 사설망(VPN) 등 관제상황 점검

□ 산업통상자원부(이하 "산업부")는 '21.7.26(월) 세종청사에서 박진규 차관 주재로 소관 40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총괄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「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회의」를 개최하였음

○ 이번 회의는 최근 국내외에서 랜섬웨어 등 사이버공격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과 사이버위협 동향을 공유하고, 각 기관별 사이버보안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함

<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회의 >

- 일시/장소 : '21. 7. 26.(월) 10:15~10:45 / 세종청사↔공공기관 비대면 영상회의
- 참석자 : 산업부 차관(주재), 40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총괄 책임자
- 주요내용 : 국내외 사이버위협 동향 공유, 공공기관별 사이버보안 대응상황 점검 등

□ 박진규 차관은 "최근 해외 에너지 인프라를 인질로 삼거나 국내 핵심 기술을 탈취하려는 등의 사이버공격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,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혼란과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"고 강조하면서,

○ “원전·전력·가스 등 에너지 핵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단 한번의 해킹사고로도 국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사이버보안에 만전을 기해줄 것”을 당부함

○ 또한 ”최근 국내 연구기관, 방산업체에서 발생한 가상사설망(VPN*) 해킹 공격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, 각 기관에서는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시 사무실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사이버보안을 유지할 것“과

* Virtual Private Network : 원격근무시 사용하는 가상 네트워크망

○ “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와 여름철 전력수요 절감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여름철 휴가 분산을 적극 실시”해 줄 것을 당부함

□ 한편, 박진규 차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을 총괄하고 있는 ‘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’를 방문하여 최근 보안이슈로 부각된 ‘가상사설망(VPN)’에 대한 관제상황을 점검하고,

○ “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날로 커져 가는 사이버위협에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“해 줄 것을 당부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호담당관실 김인 사무관(044-203-559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